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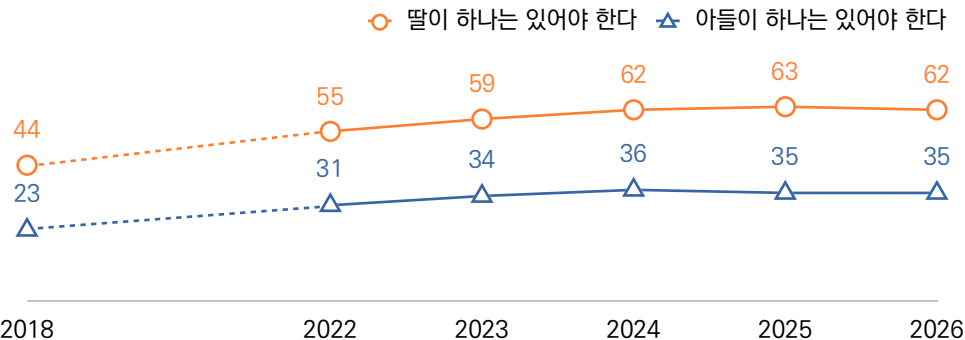


[자녀에 대한 인식]

한국인 10명 중 6명, '딸은 하나 있어야 한다'!

- 한국인은 딸을 더 선호할까? 아들을 더 선호할까?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를 묻은 결과, '딸이 하나 있어야 한다'에 62%, '아들이 하나 있어야 한다'에는 35%가 동의해, 딸 선호가 아들 선호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 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24년 이후 60%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,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'딸이 필요하다'는 데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* (일반 국민, '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' 비율, 각 조사별 N=1,000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·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

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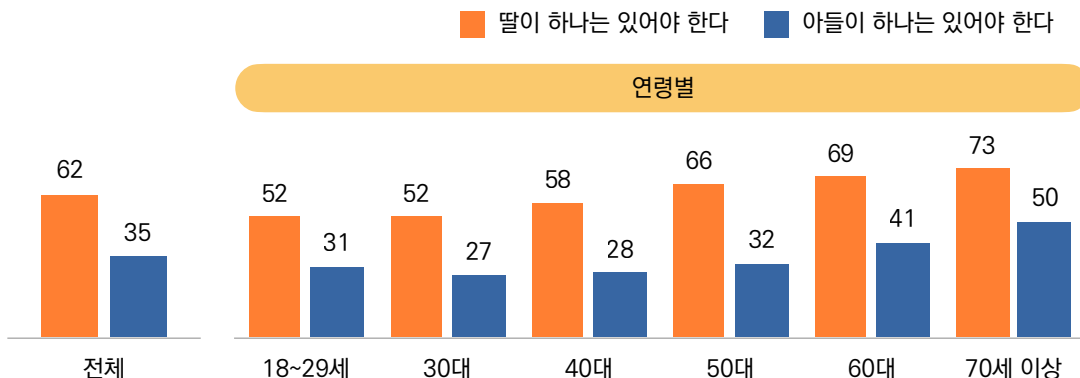
*2018년 조사는 만 19세 이상 대상 조사, 2점 척도(그렇다, 그렇지 않다)로 제시함

2021년부터는 4점 척도(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, 전혀+별로 그렇지 않다)로 제시, 2022년 조사부터는 '모르겠다'를 보기에 제시함

모든 세대에서 '딸 선호' 우세!

-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'딸 선호'가 '아들 선호'를 앞섰으며, 나이가 많을수록 아들 혹은 딸 선호도 모두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- 한편, '아들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'는 응답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만 유일하게 절반(50%)을 차지했다.

[그림] '연령별' 자녀 성별에 대한 선호도* (2026, 일반 국민, '매우+어느 정도 그렇다' 비율*, N=1,000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·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

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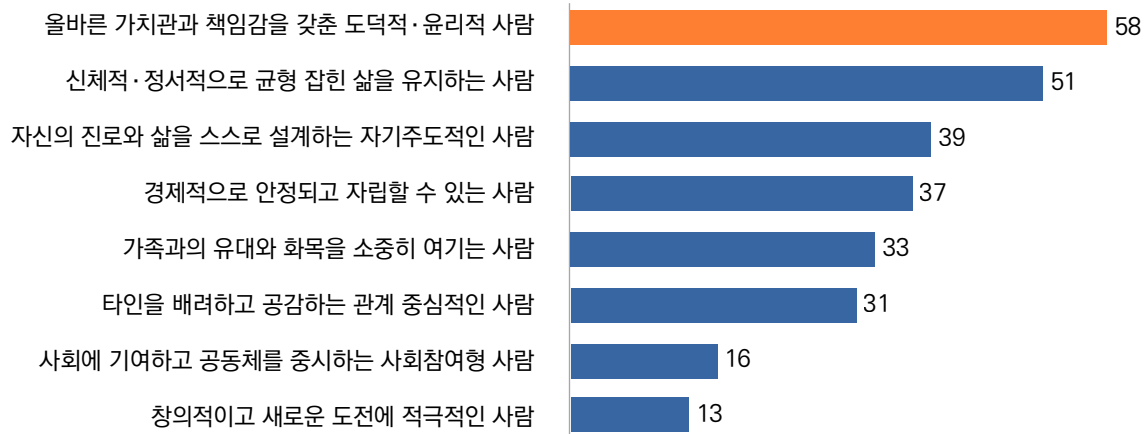
*모르겠다 응답은 제외

**4점 척도

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, ‘도덕적·윤리적인 사람’(58%)!

-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(또는 키웠는지) 묻은 결과, ‘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춘 도덕적·윤리적 사람’(58%)을 가장 높게 꼽았다. 이어 ‘신체적·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사람’(51%), ‘자신의 진로와 삶을 스스로 설계하는 자기주도적인 사람’(39%) 등의 순이었다.
- 반면 ‘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는 사람’에 대한 의견은 4위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.

[그림] 자녀 양육 시 지향하는 자녀상 (2026, 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8개, N=1,000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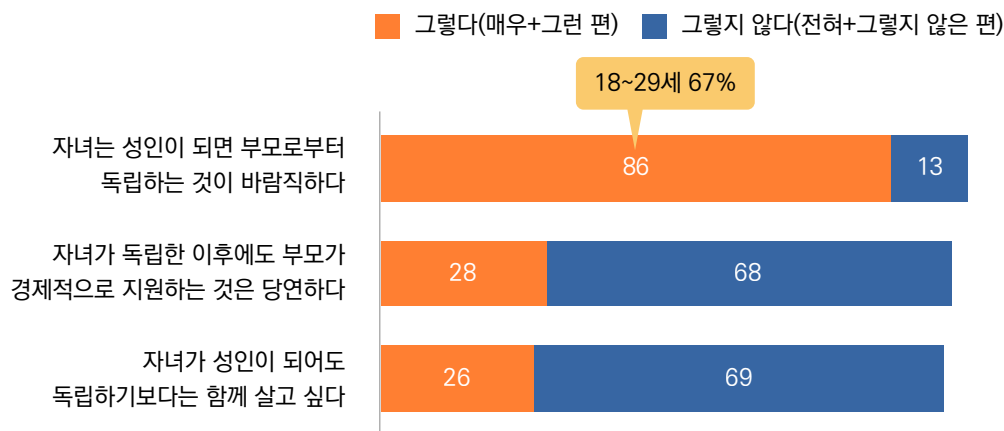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·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
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

국민 86%, ‘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’!

- 자녀 독립과 관련된 몇 가지 인식을 묻은 결과, 국민 대다수(86%)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다만 18~29세 청년층의 동의율은 67%에 그쳐, 타 연령대에 비해 독립에 대한 부담이나 유예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
- 한편, ‘독립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당연하다’(28%)는 인식에는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동의하지 않아, 자녀 독립 이후 부모와 자녀 간 경제적 분리 또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.

[그림] 자녀 독립에 대한 인식* (2026, 일반 국민, N=1,000, %)



※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, [2026 자녀·육아인식조사] 자녀 계획, 성별 선호, 그리고 양육의 방향, 2026.07.28.
(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6.04.24.~04.27.)

*모르겠다 응답은 제외